

### 39.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국소 피부경화증

성별	여성	나이	만 55세	직종	제조업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 소속으로 2013년 11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이 중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금속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사업장의 ▽공장 내에서 방청유가 도포되어 있는 프레스품(가스켓)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3년 3월에 피부 자극, 두드러기, 붓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지역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어 2023년 6월 20일 국소 피부경화증으로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방청유가 도포되어 있는 프레스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청유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국소 피부경화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2013년 11월부터 ▽공장 내에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였으나, 한 달에 3-4회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토요일에 근무하였고, 일주일 중 2번은 2시간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2013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9년 6개월간 □사업장 ▽공장 내 품질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품질관리는 가공된 생산품을 외부 업체를 통해 인산염 피막 공정을 거친 후, 방청유가 도포된 프레스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이다. 사업장 측에 의하면 비닐장갑 및 면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의자에 앉아 검사대에 제품을 올려놓고 확대경을 통해 검사하는 업무이며,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2013년 이후 프레스품의 육안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 5.2 하우징 제품 검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하였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5.2 하우징은 다른 프레스품에 비해서 기름이 훨씬 많으며, 냄새 또한 많이 올라온다고 하였다. 또한 기름이 많아서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여도 피부에 기름이 묻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작업대에 설치된 국소 배기장치는 가동 중이지 않았다.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작업 중에는 마스크, 비닐 장갑, 면장갑, 팔토시를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하였고, 마스크는 지급 받은 것이 아닌 개인용 마스크라고 하였다. 동료 근로자 또한 5.2 하우징은 방청유가 많아서 보호구가 있음에도 피부가 방청유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질환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에 최초 증상인 우측 상완의 발진이 발생하였고, 2023년 4월 3일 ○피부과의원에서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진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이 부종과 경화반이 생기고 부종으로 인해 손가락이 쥐어지지 않고 오른쪽 옆구리에도 병변이 생기는 등 질병 양상 악화되어서 2023년 5월 23일 △병원 피부과에 외래로 의뢰되어 피부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진행하였고, 2023년 6월 20일 국소 피부경화증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진단 이후 동일 의료기관 류마티스내과에서 외래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며 치료를 진행하였다. 면역억제제인 메소트렉세이트(methotrexate)와 경구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현재 약물 치료를 통해서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피부의 경화는 호전이 없이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다. 증상 발생일인 2023년 3월 3일 이전에 피부과 및 비뇨기과 수진내역이 확인되며, 주상병명은 상세불명의 피부염(2021.04.24.), 동전모양 피부염(2021.05.01.), 전신농포건선(2021.05.11.), 상세불명의 피부염(202.05.29.)이었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사업장 소속으로 2013년 11월부터 ▽공장 내에서 프레스폼(가스켓)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5.2(규격) 하우징의 제품 검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우측 전완부의 발진으로부터 시작한 손과 전완부, 그리고 우측 옆구리의 부종과 경화반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2023년 6월 20일 국소 피부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국소 피부경화증의 병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리규산 분진, bis(4-amino-3-methyl-cyclohexyl)methane,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된 후 국소 피부경화증이 발생한 사례보고가 문헌에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업무 중 방청유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업무에서 국소 피부경화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